

창설 20년, 10회 맞는 광주비엔날레

창조적 실험과 혁신의 선도적 시각문화현장

인문사회학 연계한 전시·퍼포먼스·학술 등

민간법인·지자체의 민관협력체제 운영

광주비엔날레의 창설과 운영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994년 가을부터 창설이 추진되어 1995년 가을에 첫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1회 행사가 열린 1995년은 한국의 정치·사회·문화 여러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1960년대부터 30여년 이어져 온 군사정권을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종식시키고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지방화'를 정책기조로 내걸었다. 80년대 말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90년대 들어 지구촌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경제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그 개방물결을 타고 국제사회로 적극 나아가기 위해 1995년을 세계화시대 원년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는 문화기반 시설이나 행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같은 문화육성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1995년을 첫 '미술의 해'로 지정하였고, 미술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방안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세계화·지방화' 정책에 부응하고, '미술의 해'를 기념하면서, 광주의 오랜 문화예술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분출된 광주의 시민정신을 미래 문화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1995년 창설 100년째가 된 베니스비엔날레 때 주 행사장인 자르디니공원에 마지막 국가관으로 한국관을 개설하게 된 것도 한국에 비엔날레 창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다.

창설 취지문에서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임을 자임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매회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와 현안, 공동의 지향가치를 주제로 설정하여 세계 미술계는 물론 인류사회에 창조적 문화혁신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운영은 민간주도의 재단법인체제이며, 행사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
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후원하고 있다. 창설
초기에는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운영되었고, 여기에 정부 각 부처
가 참여하는 중앙지원협의회와 중앙홍보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섰다.

초기의 관 주도는 제3회 준비과정부터 민간법인 중심의 조직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일시
적인 과도기 혼란을 거쳐 재단 이사회와 사무처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점차 민관
협력체제로 정착되었다.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1회와 2회 때는 광주시장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민간분야 문화계 인사 또는 정계 인사가 맡았고, 2007년 이후 다시 광주광역
시장이 겸직하게 되었다. 다만, 혁신적 비엔날레를 이끌어 나가는 재단운영의 특수성을 살
리고,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의 겸직에 따른 직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표
이사로 이용우(Yongwoo Lee, 李龍雨) 미술비평가 겸 기획자를 선임하여 국내외 시각문화
현장에서의 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비엔날레를 통한 개최지 광주의 변화

광주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일원이 주 행사장이다.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 타지와
교통연결이 비교적 손쉬운 여기에는 비엔날레관을 비롯,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민속박
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이 군집해 있어 중외공원문화예술벨트라 일컬어
진다. 이와 함께 행사기획에 따라 필요한 역사·문화적 장소 및 공간을 연결하여 전시는
물론, 퍼포먼스와 학술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이 광주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올해 제10회 행사개최에 이르기까지 광주비엔날레를 통한 광주 지역사
회의 변화는 괄목할만하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브랜
드효과로 연계한 국책사업이나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가령, 정부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의 주된 거점이었던 옛 전남도청
터에 건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비롯하여 광주 곳곳에 시각미디어관, 아시아전
승문화관 등 7대 문화관을 조성해 나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올 가을 준공을 거쳐 내년 개관 예정으로 주요 시설과 창조원, 교류원,
자료원 등 5개원별 콘텐츠 준비가 한창이다. 문화전당이 개관하고 나면 광주비엔날레와 더
불어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잇는 광주문화의 두 바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같은 미술분야이면서 광주비엔날레의 브랜드이미지를 지역 문화경제에 접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다. 광주광역시가 비엔날레효과를 이용해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 진흥의 촉진제 역할을 기대하며 창설하였다. 2004년 프레행사를 거쳐 2005년부터 홀수 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여 2015년 여섯 번째 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두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해를 번갈아 가며 하이테크놀로지부터 생활디자인까지 디자인의 창조적 개발은 물론 사회 문화적 가치와 디자인미학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기업이나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광주지역의 특성상 국내외 선도적 디자인의 접촉과 매개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또 하나,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성장을 활용하여 지역에 국제 미술시장을 만들어보려고 시작한 것이 '아트광주'다. 미술품의 시장형성이나 유통기반이 취약한 지역미술계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며 광주광역시가 2010년 처음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미술행사를 치러낼 만한 추진체가 마땅하지 않은 광주미술계 사정을 들어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첫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비엔날레와 아트페어의 상반된 성격과 경영전략, 대규모 국제미술행사 두개를 동시에 실행해내기에는 과중한 재단의 현실 등을 들어 제2회부터는 광주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다. 2014년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에 앞서 다섯 번째 아트광주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다.

한편으로,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시작된 국제 문화프로젝트가 광주폴리(Gwangju Folly) 조성사업이다.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때 도시의 주요 공간에 대한 장소성을 특화시키는 공공프로젝트로 처음 실현되었다. 그리고 첫 회의 성과와 가능성을 토대로 광주광역시가 문화자산 조성사업으로 채택하여 연속 프로젝트로 이어가고 있다. 광주 도심과 역사 문화적인 장소에 공공 공간으로써 랜드마크 기능과 이용 편의성을 갖는 소규모 건축조형물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2011년도 1차 폴리프로젝트는 일제 식민지 초기에 흔적도 없이 철거되어버린 광주읍성을 상징적으로 복원하여 도시의 역사를 되살려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읍성의 4대문 자리와 성벽터를 따라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프란시스코 산인(Francisco Sanin)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건축가까지 각자 개성 있는 10기의 폴리를 세웠다. 이와 함께 광주도심을 감싸고 지나던 폐선부지를 생태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푸른길'에 총감독인 승효상(H-SANG SEUNG, 承孝相)의 폴리 1기가 조성되었다. 이 후 광주광역시가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이 프로젝트를 위탁하여 2012년부터 13년까지 2차 사업으로 광주역 광장과 시민공원 앞, 광주천변 등 광주 곳곳에 렘 쿨하스(Rem Koolhaas), 데이비드 아자예(David Adjaye),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艾未未), 서도호(Do-ho

Suh, 徐道濩) 등의 폴리 8기를 새로 조성하였다. 지금은 광주폴리시민협의회와 더불어 3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광주비엔날레를 통한 지역사회 가장 큰 파급효과는 도시에 문화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특히 청년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훨씬 더 다양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점이다. 말하자면 광주비엔날레를 통한 주기적인 문화자극과 직간접적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과거 전통적인 화맥과 지역양식에서 탈피하여 매체나 형식, 개념은 물론, 활동 영역에서도 이전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연계하여 LED나 디지털매체를 회화나 입체적인 조형 설치에 끌어들이므로써 독특한 시각이미지나 서사와 감성을 연출해 내기도 하고, 이를 공적 공간이나 산업영역으로 연결시키면서 매년 광주 도심에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열기도 한다. 이들 청년세대들은 어려운 창작여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개별적인 자구노력들과 함께 서로 의기투합하여 문화적인 소통과 공유를 위한 기획전이나 프로젝트를 벌이기도 하면서 동세대 문화를 이루어가기도 한다.

또한, 광주비엔날레는 전문분야는 물론 시민사회의 문화현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광주비엔날레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준비 현장을 연결하여 1개월 과정의 국제큐레이터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코스에 지역 연고를 가진 전공자나 신예 기획자들이 참여하여 전문역량을 키우고 국제적인 동세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매회 전시 실무담당이나 도슨트, 전시진행요원 등으로 비엔날레 현장에 참여한 경험들을 쌓고 이후 관련분야 기관이나 사업에서 역할을 맡거나 다양한 방식의 문화활동가로 성장해 간다. 또, 관련학과를 둔 대학들과 협력사업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학 중에 국제미술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 인적 자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한다. 시민들도 단순 관람자 이상으로 비엔날레 작품 제작과정이나 프로젝트, 퍼포먼스 등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로 현장의 일원이 되었다가 이후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도 한다.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기획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기획은 예술총감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 회의 행사가 종료되는 직후부터 재단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차기 행사의 방향과 주안점 등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총감독 후보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여러 차례 압축과정과 국제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최종후보를 정한 뒤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된다. 총감독이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의 제한은 두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공동감독제를 택하기도 하는데, 2012년 제9회 경

우처럼 6인을 공동감독으로 선임한 경우도 있다.

예술총감독이 선정되면 차기 비엔날레 기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직무수행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기본조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기획 총괄자로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 총감독들은 대개 전시를 기획해야할 광주비엔날레와 개최지인 광주에 대한 리서치부터 시작한다. 크게 보면 광주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현재,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함께 세상의 인문 사회학적 쟁점이나 지향가치를 시각문화로 담아내는데 중점을 둔다. 가령, 첫 광주비엔날레 때인 1995년에 인종과 종교와 지역간 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 '경계를 넘어'(Beyond the Borders)라는 호소성 있는 주제와 전시작품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2000년 제3회 때 인간 존재와 서로의 관계, 삶의 공간들에 대해 되짚어보는 '人+間'(Man and Space), 생태환경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2004년 제5회 때는 '먼지 한 톨 물 한방'(A Grain of Dust A Drop of Water),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 되던 해인 2010년 제8회는 '광주정신'을 재해석한 '만인보'(10000 Lives, 萬人譜)를, 창설 20주년이 자 10회째가 되는 올해에는 창조적 혁신을 외치는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는 주제와 작품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전시 장소는 중외공원에 위치한 비엔날레전시관이 주 전시공간이다. 층고가 다른 다섯 개의 전시실을 연결하여 약 8300여㎡의 전시공간을 소주제별 또는 섹션별로 구분하거나 전체 흐름을 주어 전시를 연출한다. 이와 더불어 가까이 인접한 광주시립미술관을 포함하거나, 5·18자유공원 같은 역사적인 장소, 광주 지하철역이나 도심 전통시장, 근대건축물인 광주극장 등 사회 문화적인 공적 공간을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기도 한다. 전시 외에 퍼포먼스가 광주의 심장부라 할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기도 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개최지와 밀착되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넓히기도 한다.

창조적 혁신 위해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 제10회 행사는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를 주제로 올해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66일간 열린다.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큐레이터인 제시카 모건(Jessica Morgan) 예술총감독의 기획으로 불의 생성과 소멸의 에너지, 가변성, 확산성을 기본개념으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역동적인 문화현장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의 저항과 갈망, 미술역사가 된 물질과 매체의 혁신성, 신체의 의미와 성적 정체성 등 수많은 이슈와 쟁점들을 시각문화로 펼쳐낸다.

39개국 105작가(114명)가 참여하여 비엔날레관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도시의 역사 문화적인 공간들을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던 이전과는 달라진 점인데, 전시를 집중력 있게 효과적으로 연출하려는 기획의도에 따른 것이다. 전시의 내용 또한 일반적인 시각이미지 작품들 외에 퍼포먼스나 공연 프로그램이 전시기간 중에 진행되어 복합 문화의 장을 만들어낸다.

비엔날레관 외벽에 붙타는 전시관을 박차고 튀어나오는 제레미 델러(Jeremy Deller)의 거대한 문어 착시그림, 전시관 앞 광장에 장소이동 퍼포먼스로 경사에서 옮겨온 임민옥(Minouk Lim)의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무명유골들 컨테이너, 실내가 온통 연기 이미지로 자욱한 엘 우띠모 그리또(Eli Ultimo Gritto)의 벽지작업, 제도와 성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서 이불(Bul Lee)의 퍼포먼스 영상, 5·18광주민중항쟁을 안무로 재현해내는 시민참여 퍼포먼스, 파괴되어가는 화학공장의 영상으로 일상 공간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는 알로라&칼자디아(Allora & Calzadilla), 양쪽에 늘어선 퍼포머들과 관람객이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 퍼포먼스,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출생한 10대 청소년 5명을 모델로 그 역사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현장작업을 한 류 샤오동(Xiadong Liu, 刘小东)의 대형 화폭 등이 전시된다. 아울러 놀이패 신명과 극단 토박이가 벌이는 강제되지 않은 즉흥행위와 반 가공상태 오브제들을 이용한 퍼포먼스 등 불의 생명력처럼 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시로 혁신의 메시지들을 풀어낸다.

이와 함께 창설 20주년 맞이 특별프로젝트는 '달콤한 이슬 : 1980 그 후'를 주제로 8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로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광주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인문 사회학적으로 심화 확장하는 토론과 강연 시리즈, 이를 17개국 57명의 국내외 작가 작품들로 풀어내는 전시, 역사현장에서 8개 현장이벤트로 펼쳐내는 오월길 거리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 조인호 Inho Cho 趙仁皓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